

주간 한우정보

제2호

2021. 5. 31.

국내 소식

- 한우, 온라인 판매 급증, 소득과 자녀여부 구매력 좌우

해외 소식(탄소배출 감축 기술)

- 일본, 화우 증산과 온실가스 감축은 모순 없는 정책
- 호주, 탄소배출 저감기술로 육우산업 지원
- 세계 소 산업, 탄소배출 반으로 줄일 수 있다

전 국 한 우 협 회
한 우 정 책 연 구 소

한우, 온라인 판매 급증, 소득과 자녀여부 구매력 좌우

-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올해 초 일반 소비자 3천명, 한우 소매판매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‘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’을 실시
 - 조사결과, 소비자들이 한우고기 구입 시 고려하는 주요 요소는 등급, 가격, 육색, 마블링 순이며, 한우고기 구입경험은 전년보다 0.3%p증가한 84.2%로 나타남
- 소득수준이 높고, 자녀가 있는 가정일수록 한우고기에 대한 선호도와 구매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 - 월 700만원 이상 소득층의 구매횟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
 - 월간 구매횟수 : (19년) 1.8회 → (20년) 2.0회
 - 1회 한우구매량과 구매금액이 많은 가구의 특성은, 구매량은 중고등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(640.6g), 구매금액은 초등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(42,444원)로 나타남
- 한우고기 구매경로는, 대형할인점이 43.8%로 가장 높고, 일반정육점(21.2%), 브랜드직영점(15.9%), 슈퍼마켓(10.4%) 순
 -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 경로 이용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
 - 온라인 구매 비율 : (19년) 2.0% → (20년) 5.2%
 - 한우구입 시 선호등급은 1+등급(58.9%), 1등급(21.0%), 1++등급(18.4%) 순이며, 2인 가구 이하는 저 등급을 선호
- 한우소비 확대를 위해서는, 주 소비층인 고소득 청소년가구는 품질중시, 1~2인가구는 가성비 강조, 병행 마케팅이 요구됨

자료 :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, 보도자료 (21.5.27)

일본, 화우증산과 온실가스 감축은 모순 없는 정책

□ 일본정부는, ‘화우 배증(倍增)정책’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정책은 ‘모순되지 않는다’는 입장

-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업의 환경부하 저감을 목표로 하는 '녹색 식량 시스템 전략'을 확정, 5월 12일 공표
- 한편 농림수산성은, 트림에 온실효과 가스 요인으로 주목받는 화우의 생산량 배증도 목표로 마릿수 증대를 장려하고 있음
 - 화우 배증 정책 : (18년) 14.9만톤 → (35년) 30만톤 목표
 - 번식우 두당 장려금 : (50두 미만 농가) 24.6만엔, (50두 이상) 17.5만엔
- “두 개의 정책은 모순되지 않는 것인가?” 라는 문의에 대해, 농림수산성은 “모순되지 않는다”라고 표명
 - 2019년도 온실가스 총배출량 가운데 축산업은 1%에 불과하며, “원래 일본의 축산규모는 구미에 비해 작다”라고, 표명

□ '녹색 식량시스템 전략'에서는 다양한 온실가스 저감 기술개발로 화우두수 증가에 대응한다는 방침

- 녹색전략에는, ①소의 트림 유래 메탄가스 억제 사료 개발, ②적은 사료로도 살이 잘 찌는 가축개량, ③가축 배설물 중 질소와 인 등의 효율적인 회수활용 기술 개발 등을 2050년까지 실용화하는 공정표도 담고 있음
- 농림수산성 간부는 “이러한 기술이 확립되면, 화우 마리수가 늘어나도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량은 억제된다” 라고 주장

□ 일본은 늘어난 화우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수출한다는 구상이며, 화우를 일본 대표 수출상품으로 육성해 간다는 전략

자료 : 일본 농림수산성, 일본농업신문(21.5.24)

호주, 탄소배출 저감기술로 육우산업 지원

□ 호주는 새로운 ‘탄소배출 저감 기술’을 비육우사육 현장에 적용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정책을 본격화

○ 202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 이 정책 프로그램은, 영연방 정책의 일환으로, 소 사육에 새로운 탄소배출 저감기술을 최대한으로 활용토록, 업체당 5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까지 보조금을 지원

○ 호주육우생산자협회(CCA)는, “이 정책이 소의 메탄 배출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”고 환영의사를 표명

- 라스만 협의회장은 "소고기 생산자들이 온실 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, 소 산업은 기후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," 라고 환영

□ 남부 인디펜던트 이사인 올리비아 로슨은 사료 첨가제, 아스파라긴스는 하나의 신기술이며 배출량을 96%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○ 로슨 씨는 “보조금을 통해 우리는 패덕에 있는 아스파라긴과 같은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을 것이며 제품을 시장에 빨리 출시할 수 있도록 도울 것”이라고 표명

- 호주 ‘퓨처피드’사는 학명이 ‘Asparagopsis taxiformis’인 해조류 추출물을 사료에 섞어 먹여 소의 메탄 배출을 80% 이상 줄이는데 성공

○ “이는 소고기 생산량을 최대 20퍼센트까지 증가시키는 동시에 이산화탄소의 생산량을 극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들에게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.”

□ 호주의 소 산업에 대한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 저감기술 지원은, 호주산 소고기의 새로운 경쟁력 요인으로 주목할 필요

자료 : 호주육우생산자협회(Cattle Council of Australia) 홈페이지 (21.5.27)

세계 소 산업, 탄소배출 반으로 줄일 수 있다

-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 연구결과에 따르면, 소 산업으로 야기되는 탄소배출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짐
 - 콜로라도 주립대학 다니엘 쿠삭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, 전세계 소고기 생산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12가지 전략을 평가한 연구결과를 ‘Global Change Biology’(21.3.3)지에 발표
 - 연구결과, 유기적 토양개량, 삼림복원, 하천제방지역의 다년생 식물 복원 등, 탄소 관리전략을 통해, 소고기 생산 온실가스 배출량이 46% 감소했음을 발견
 - 또한, 성장효율전략을 사용한 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8%의 순 온실가스 (GHG) 감소를 확인
- 아시아, 호주, 브라질, 캐나다, 중남미, 미국을 대상으로 관행구와 실험구를 비교한 결과 브라질의 탄소배출 감소 가능성이 57%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
 - 브라질 탄소배출 및 생산효율에 대한 관리전략에는, 사료품질 개선, 품종선택 개선, 비료관리 강화 등이 포함됨
 - 순환방목계획, 토양퇴비 추가, 퇴화지역 산림녹화, 토양 탄소배출 식물 심기 등이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남
- 연구책임자 다니엘·쿠삭 교수는, “올바른 토지관리와 효율성 전략을 마련하면, 지역 전체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”고 결론
 - 아울러 “아시아는 소고기시장이 성장하는 지역이지만, 소고기 생산 탄소저감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부족하다”고 아쉬움을 표명

자료 : Global Change Biology/ Volume 27 (21.3.3)